

Current Status of Polypropylene Market in Peru

# 페루 폴리프로필렌시장 현황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자료 제공

## I. 페루 폴리프로필렌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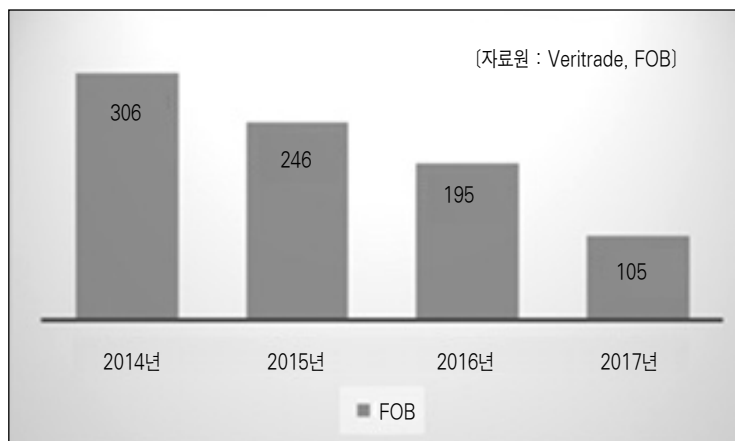
### 1. 연도별 수입 동향

폴리프로필렌은 지난 3년간 수입량이 21% 감소했음에도 페루 내 수입규모가 가장 큰 상품 중 하나로, 수입규모는 2017년 상반기 기준 1억 500만 달러에 달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차 제조업의 생산규모가 9.4% 감소했다. 이는 폴리프로필렌 유도체와 같은 화학제품의 2.2% 생산 감소로 이어졌으며, 의류상품과 청소제품은 각각 9.7%, 6.1% 만큼 감소했다.

2014년(3억 600만 달러)부터 2016년(1억 9,500만 달러)까지 수입규모가 36% 하락한 바 있으나 올해 상반기 1억 500만 달러의 수입이 이뤄지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림 1) 페루 폴리프로필렌 수입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2. 각 국가별 교역규모

지난 2016년 페루의 주요 폴리프로필렌 거래국은 칠레(17.5%), 사우디아라비아(17%), 브라질(16%) 그리고 콜롬비아(14.5%) 순이었으며, 이 4개국이 전체 수입량의 65%를 차지했다.

[표 1] 각 국가별 폴리프로필렌 수입현황

국명	수입규모(백만 달러)	전체 대비 수입규모(%)
칠레	34	17.5
사우디아라비아	32.8	17
브라질	31	16
콜롬비아	28.1	14.5
그외	68.3	35

(자료원 : Veritrade)

[표 2] 페루 주요 폴리프로필렌 가공품 수출현황

구분	수출규모(백만 달러)	주요 생산품목
OPP FILM	53	필름 및 수지
FITESA	14.9	의료용 · 산업용 부직포
IBEROAMERICANA DE PLASTICOS SAC	11.4	비닐덮개, 가방, 금속판
DISPERCOL	10.5	플라스틱 수지
PAMOLSA	8.2	일회용 포장용기

(자료원 : Veritrade)

### 3. 페루 주요 폴리프로필렌 가공업체

페루의 주요 폴리프로필렌 가공업체로 수출규모 순으로 OPP FILM, FITESA, IBEROAMERICANA DE PLASTICOS SAC, DISPERCOL, PAMOLSA가 있다.

OPP FILM은 폴리프로필렌 가공품의 연간 수출규모가 5,300만 달러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2003년부터 페루에 BOPP 공장을 두고 있다. 연간 생산능력이 2만 톤에 달해 주요 생산품인 필름 및 수지를 비롯한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 및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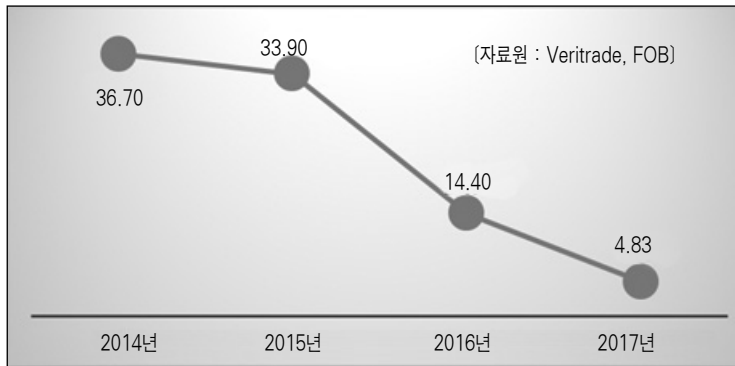
OPP FILM은 전 세계 곳곳에 6개의 공장과 4개의 지부를 두는 등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수출량은 10~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브라질 기업인 FITESA는 남미시장에 폴리프로필렌을 공급하기 위한 거점으로 페루의 지형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 4. 페루와 우리나라의 교역현황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시장의 침체로 인해 교역량이 급격하게 줄었으나, 다수의 전문가들이 2018년에는 1,000만~1,200만 달러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 2] 페루-한국 폴리프로필렌 교역규모 (단위 : 백만 달러)



폴리프로필렌 (HS Code 3902.10.00)의 관세율은 한국-페루 FTA협약에 따라 0%이고, 수입 절차에 있어서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로 폴리프로필렌을 재가공해 판매하는 공장 위주로 수입이 이루어지지만, 낮은 비율로 최종소비자와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 II. 진출전략 및 시사점

2017년 상반기 페루 플라스틱 제조업시장은

3.2% 상승세를 보였다.

2017년 하반기 페루 GDP가 2.5% 상승함에 따라 페루 플라스틱 제조업시장도 10% 상승할 것으로 발표된 바가 있다.

폴리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제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자재인 만큼 플라스틱 및 비닐 수요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플라스틱 제조업시장의 활성화는 폴리프로필렌 수요의 증가로 직결될 전망이다.

양혜민 페루 리마무역관은 “페루의 95개 회사가 폴리프로필렌을 수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OPP FILM와 FITESA 두 회사가 전체의 33%를 차지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당 품목이 FTA로 인한 무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페루의 주요 수입업체를 위주로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9]